Bitcoin Angle SHORT

2026-04-03 · Conviction ●●●●● · HIGH

Verdict

Winning Hypothesis: 시장이 맞다: 비트코인의 현재 하락세는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실패가 아닌, 고위험 자산으로서의 가치 재평가 과정임. 전쟁과 관세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축소 (Liquidity Crunch) 에 가장 민감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현금이나 금 (GOLD) 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2026 년 초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CPI 둔화 모호성, 실업수당 증가) 에 대한 합리적인 방어적 대응임. 즉, 현재 가격은 '긴 겨울의 끝'을 선행하는 과도기적 저점이며, 규제 명확화와 ETF 유입 전환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리스크 오프 (Risk-off) 기조가 지속되어 추가 하방 압력이 유효함.

시장 참여자들은 2026 년 1 분기 실적 충격과 4 월 초의 급격한 매도세로 인해 '공포' 국면에 진입했으며, 전쟁 리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예고가 위험자산 심리를 억누르고 있음.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명확화와 비트코인 현물 ETF 의 순유입 전환을 '긴 겨울의 끝'으로 해석하며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고래들의 거래소 이동 증가와 대규모 롱 청산 위험으로 인해 '관망세'가 지배적인 상황임.

이는 맞는 판단인데, 수집된 증거가 비트코인의 현재 하락이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실패가 아닌 매크로 환경에 따른 합리적인 자산 재배분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임. BTC 6 개월 수익률이 -26.34% 로 급락한 반면, 동일 기간 GOLD 는 +22.48% 상승하여 투자자들이 전쟁과 관세 리스크 속에서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입증함 (GOLD 6M Return 22.48 vs BTC 6M Return -26.34). 또한, BTC-GOLD 의 단기 베타가 -0.0202 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두 자산이 디커플링 되어 비트코인이 여전히 고위험 자산 (Risk-off 시 매도 대상) 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증명함. DXY 의 3 개월 1.62% 상승과 BTC 의 3 개월 -20.4% 하락은 달러 강세와 유동성 축소 기조가 비트코인 매도를 주도하고 있으며, ICSA 202,000 건의 실업수당 청구 증가는 경기 침체 우려를 부추겨 연준의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규제 명확화나 ETF 유입 전환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리스크 오프 기조가 지속되어 추가 하방 압력이 유효하다는 가설 A 의 논리가 현재 데이터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됨.

Action: GOLD 비중 확대 및 BTC 비중 축소

Invalidation: BTC-GOLD 단기 베타가 0.05 이상으로 반전되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2 주 이상 지속될 경우

Risk Factors: 매크로 리스크: 연준 (Fed) 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달러 강세 (DXY) 가 급반전하고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될 경우, 기술적/포지셔닝 리스크: BTC 가격이 -46.32% 의 심한 하락폭 이후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서 단기 반등 (Dead Cat Bounce) 을 시도하며 레버리지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는 경우, 이벤트 리스크: 주요 국가의 비트코인 규제 명확화나 대형 기관의 전략적 ETF 대량 유입 발표로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급격히 재부상할 경우

Macro Picture

Regime: risk_off
Key Themes: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공포로 인한 위험자산 매도, 규제 명확화 기대와 ETF 자금 유입의 변동성 공존, 실질금리 상승 압력과 인플레이션 둔화 모호성

Dominant Narrative: 시장 참여자들은 2026년 1분기 최악의 실적과 4월 초의 급격한 매도세로 인해 '공포' 국면에 진입했으며, 전쟁 리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예고가 위험자산 심리를 억누르고 있음. 기관 투자자들은 SEC 의장 체제 하의 규제 명확화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전환을 '긴 겨울의 끝'으로 해석하며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고래들의 거래소 이동 증가와 대규모 롱 청산 위험으로 인해 '관망세'가 지배적인 상황임.

Reality: 2026년 2월 기준 CPI(327.46)와 10Y-2Y 국채 스프레드(0.52%)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실질금리 상승 압력이 비트코인 같은 비수익 자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함. 2월 소비자 심리(56.6)와 3월 실업수당 청구(202,000건)는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지만, 4월 초의 지정학적 긴장과 관세 정책은 유동성 축소 시나리오를 강화하여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을 20% 이상 확대할 수 있는 환경임.

Hypotheses

Key Question: 2026 년 2 분기 중 연준이 실질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거나, 전쟁/관세 리스크로 인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비트코인이 금 (GOLD) 과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며 추가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금과 디커플링 (Decoupling) 되며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재부상하여 반등할 것인가?

Tensions

전쟁과 관세 리스크 속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강하게 부각되는 반면, 실질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 기조로 인해 비트코인은 위험자산과 동조화되어 매도 압력을 받고 있음.

0.85

Narrative: 지정학적 불안과 관세 공포 속에서 금을 대체할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하여 연말 2억 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론

Reality: 실질금리 상승 압력과 20% 이상의 변동성 확대 우려로 인해 비트코인이 NDX 및 SPX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리스크 오프 흐름에 편입되어

BTC GOLD NDX SPX US10Y

규제 명확화와 ETF 순유입 전환을 '긴 겨울의 끝'으로 해석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존재하나, 고래의 거래소 유입과 규제 법안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단기 반등을 제한하고 있음.

0.65

Narrative: SEC 의장 체제 하의 규제 명확화와 현물 ETF의 순유입 전환이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촉발하여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었다는 낙관적 해석

Reality: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타협안 불확실성, 그리고 고래들의 거래소 이동 증가로 인해 투자 심리가 '관망세'로 전환되어 상승 모

BTC ETH US10Y VIX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와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에 기반한 반등 내러티브가 지배적이지만, CPI 둔화 모호성과 실업수당 청구 증가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유동성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음.

0.70

Narrative: 인플레이션 둔화와 2026 년 상반기 경기 회복 기대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반년 만에 상승 전환하며 모건스탠리 등의 상승 시나리오가 현실화

Reality: CPI 가 327.46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으며, 소비자 심리 저조와 실업수당 청구 증가가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며 실질금리

BTC SPX US10Y DXY

Alternatives

XAU - 현물 금 (Spot Gold) — 상승

현재 'risk_off' 레짐과 전쟁/관세 리스크 속에서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으로 매도되는 반면, 금은 +22.48% 상승하며 명확한 안전자산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BTC-GOLD 의 음의 베타 (-0.0202) 는 두 자산의 디커플링을 증명하므로, 금으로의 자산 재배분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 전략입니다.

US10Y - 미국 국채 (10 년물) — 상승 (수익률 하락)

실질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 기조가 비트코인 매도를 주도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 우려 (실업수당 청구 증가) 가 심화될 경우 연준의 방어적 태도 전환이나 안전자산 수요로 인해 국채 가격이 상승 (수익률 하락)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금성 자산의 대체재로서 포트폴리오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USD - 미국 달러 (DXY) — 상승

DXY 의 3 개월 +1.62% 상승과 BTC 의 -20.4% 하락은 달러 강세가 비트코인 매도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스크 오프 환경과 관세 리스크는 달러의 안전자산 기능을 강화시키므로, 달러 강세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Eval Scores

PASS

Overall	4.0
Tension	4
Hypothesis	5
Evidence	5
Verdict Logic	2

Feedback: 1. **tension_validity (4/5)**: '디지털 금' 내러티브와 실질금리/유동성 축소라는 매크로 현실 간의 긴장 관계는 매우 명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2026 년 초'라는 미래 시점을 현재 시점의 '긴장'으로 묘사하는 데 있어 시간적 맥락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전체적인 논리는 타당합니다. '2 억 달러 수준'과 같은 구체적 수치 제시가 근거 없이 언급된 점은 약간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내러티브의 핵심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2. **hypothesis_quality (5/5)**: 가설 A(시장 옳음) 와 B(시장 틀림) 가 서로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동일한 데이터 (실업수당, 금리, ETF 유입 등) 를 해석하는 방식이 대칭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두 가설 모두 반증 가능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3. **evidence_targeting (5/5)**: 데이터 쇼핑리스트가 가설 A 와 B 를 검증하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가격 추이, 금리차 (T10Y2Y), 실업수당 (ICSA),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 (RAG) 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검증이 가능합니다. 수집된 증거의 종류도 적절합니다. 4. **verdict_logic (2/5)**: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과 데이터 불일치가 발견되어 감점되었습니다.** - **데이터 불일치 (감점 -2)**: Verdict 의 Rationale 에서 'BTC 6 개월 수익률이 -26.34% 로 급락한 반면, 동일 기간 GOLD 는 +22.48% 상승'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 (2024 년 중후반 기준) 에서 비트코인이 6 개월 만에 -26% 를 기록하고 금이 +22% 를 기록했다는 것은 실제 시장 데이터와 크게 동떨어진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비트코인이 최근 6 개월간 상승세였거나, 금의 상승폭이 이 정도가 아

닙니다). 이는 '인용된 수치가 실제 소스 데이터와 다르다'는 규칙에 해당하여 해당 차원 점수를 대폭 낮춥니다. - **논리적 비약**: '2026 년 1 분기 실적 충격'과 '4 월 초의 급격한 매도세'를 현재 시점의 근거로 들면서, 동시에 '2026 년 초'를 미래 시점으로 언급하는 등 시간적 혼란이 있습니다. 또한, 'GOLD 6M Return 22.48 vs BTC 6M Return -26.34'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들었으나, 이 수치가 실제 데이터 소스 (FRED, CoinGecko 등) 에서 도출된 것인지, 아니면 가상의 시나리오인지 불분명하며, 실제 데이터와 다르면 분석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 **개선 방안**: 실제 최신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치를 재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6 개월 수익률'과 '금리/실업수당' 수치는 FRED 나 코인마켓캡 등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의 최신 데이터를 인용해야 합니다. 시간적 맥락 (현재 vs 미래) 을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MORNING ANGLE 2026-04-03

시장의 뷰: 시장 참여자들은 2026 년 1 분기 실적 충격과 4 월 초의 급격한 매도세로 인해 '공포' 국면에 진입했으며, 전쟁 리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예고가 위험자산 심리를 억누르고 있음.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명확화와 비트코인 현물 ETF 의 순유입 전환을 '긴 겨울의 끝'으로 해석하며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으나, 고래들의 거래소 이동 증가와 대규모 롱 청산 위험으로 인해 '관망세'가 지배적인 상황임.

결론: 시장이 맞다: 비트코인의 현재 하락세는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실패가 아닌, 고위험 자산으로서의 가치 재평가 과정임. 전쟁과 관세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축소 (Liquidity Crunch) 에 가장 민감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현금이나 금 (GOLD) 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2026 년 초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CPI 둔화 모호성, 실업수당 증가) 에 대한 합리적인 방어적 대응임. 즉, 현재 가격은 '긴 겨울의 끝'을 선행하는 과도기적 저점이며, 규제 명확화와 ETF 유입 전환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리스크 오프 (Risk-off) 기조가 지속되어 추가 하방 압력이 유효함. [HIGH]

이는 맞는 판단인데, 수집된 증거가 비트코인의 현재 하락이 '디지털 금' 내러티브의 실패가 아닌 매크로 환경에 따른 합리적인 자산 재배분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임. BTC 6 개월 수익률이 -26.34% 로 급락한 반면, 동일 기간 GOLD 는 +22.48% 상승하여 투자자들이 전쟁과 관세 리스크 속에서 전통적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입증함 (GOLD 6M Return 22.48 vs BTC 6M Return -26.34). 또한, BTC-GOLD 의 단기 베타가 -0.0202 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두 자산이 디커플링되어 비트코인이 여전히 고위험 자산 (Risk-off 시 매도 대상) 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증명함. DXY 의 3 개월 1.62% 상승과 BTC 의 3 개월 -20.4% 하락은 달러 강세와 유동성 축소 기조가 비트코인 매도를 주도하고 있으며, ICSA 202,000 건의 실업수당 청구 증가는 경기 침체 우려를 부추겨 연준의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보다는 방어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규제 명확화나 ETF 유입 전환이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리스크 오프 기조가 지속되어 추가 하방 압력이 유효하다는 가설 A 의 논리가 현재 데이터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됨.

→ GOLD 비중 확대 및 BTC 비중 축소

무효화: BTC-GOLD 단기 베타가 0.05 이상으로 반전되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2 주 이상 지속될 경우

대안: XAU: 현재 'risk_off' 레짐과 전쟁/관세 리스크 속에서 비트코인이 위험 | US10Y: 실질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 기조가 비트코인 매도를 주도하고 있으나, 경 | USD: DXY 의 3 개월 +1.62% 상승과 BTC 의 -20.4% 하락은 달